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Korea

2021
FEBRUARY
vol. 296

02



발행일 2021년 2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증,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류경민

글 김민정, 김혜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생각하다

04 : ON HRD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06 : 한눈에 HRD

2020년도
일학습병행 통계

08 : 공들인 인터뷰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업
(주)피씨엠

12 : HRD Focus

일과 배움의 균형이
필요한 시대의 도래

② 자리를 찾다

14 : 명장의 수선실

전통에 기술을 더해
새로운 복식문화를 피워냅니다

18 : 꿈지락 꿈지락

자격증 그 이상의 가치

20 : HRD 투게더

'위기상황에서
당신의 생존 전략은?'
산업지원부
무인도 생존일지 도전

24 :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누리보듬

③ 스스로 행하다

28 : 여행 사랑피

멀리 있어도
결코 멀지 않은 - 울릉도

30 : 트렌디한 자격

탈 탄소 사회를 이끄는
녹색 패러다임, 그린뉴딜

34 :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

머무르고 싶은 '집' 만들기

36 : 성공! 해외취업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④ 하나로 모으다

38 : 직통 직방

300만 원 저축하면?
1200만 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0 : 청렴학 칼럼

생활 속 청렴,
사소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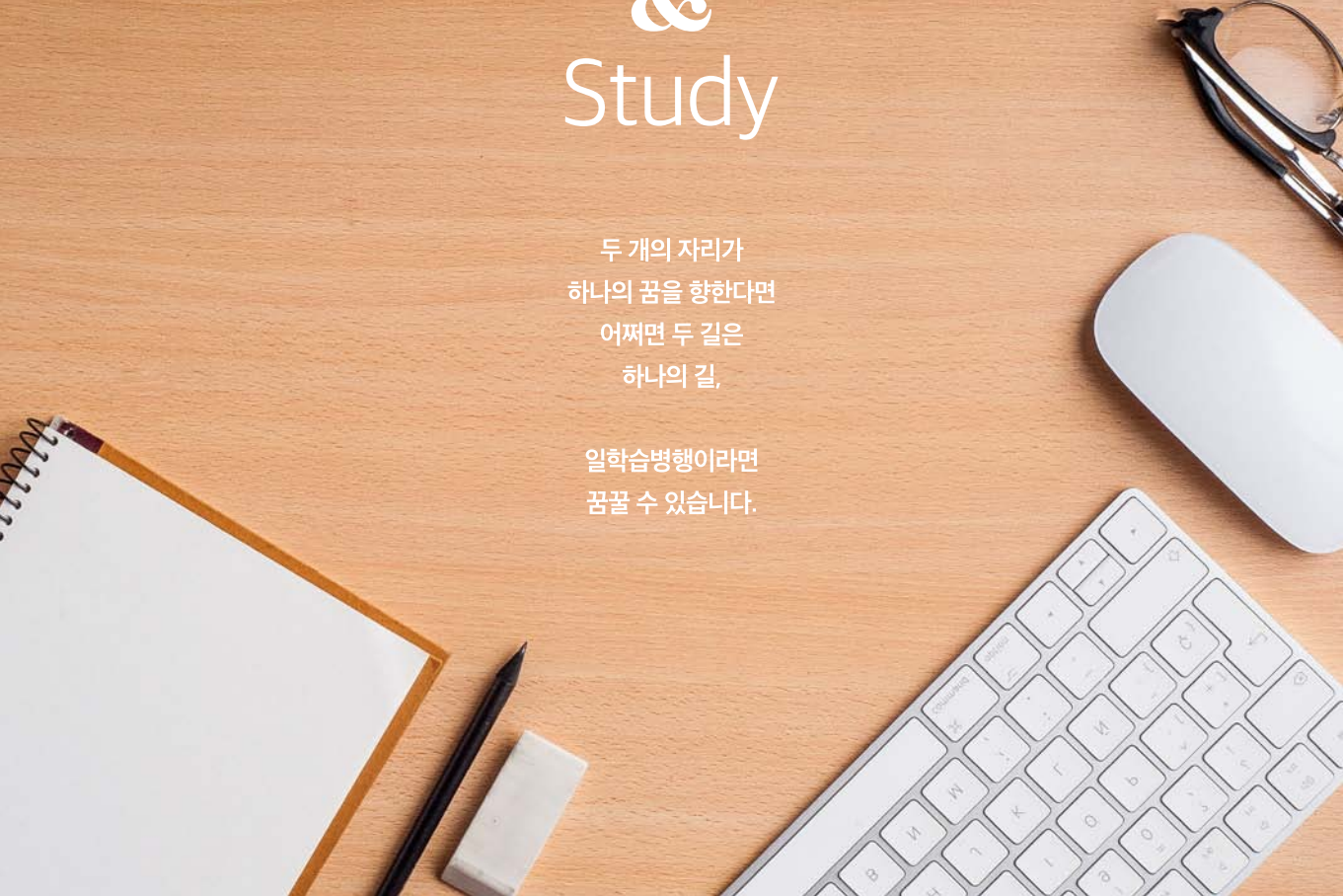
42 : HRD NEWS

44 : 독자이야기



두 개의 책상
두 개의 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패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지만

Work & Study



두 개의 자리가
하나의 꿈을 향한다면
어쩌면 두 길은
하나의 길,

일학습병행이라면
꿈꿀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일과 학습을 동시에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기반으로 업무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참여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 등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1 학습기업 지정
- 2 훈련과정개발 및 인정
- 3 학습근로자 선발·채용
- 4 현장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실시
- 5 학습근로자 훈련성과평가
- 6 자격 및 학위 취득

지원사항

-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및 수당 지원
- 훈련비, 훈련장려금,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등 지원

참여기업 혜택

- 고용노동부, 교육부 -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 조달청 - 물품제조·입찰 적격심사 가점,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심사 가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참여기업 기대효과

- 신입사원 교육비 절감
- 기업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가능
- 장기간 훈련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가능



☞ 참여유형

1 재직단계

명 칭	대 상	주요내용
단독기업형 (50인 이상)	신규 입사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
공동훈련 센터형 (20인 이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 업장 외 교육훈련은 공동 훈련센터가 수행
P-TECH (고숙련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 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모델

2 재학단계

명 칭	대 상	주요내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 계열) 학생이 학교와 기업 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 훈련을 받는 모델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최종학년	능력중심의 실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NCS 학사체계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 하는 훈련 모델
IPP형 일학습병행	4년제대 3~4학년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 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 참여근로자 혜택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8.28.)

- 1 학습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 2 평가를 통한 국가자격 취득 가능
- 3 학위과정 연계 시 학위 취득 가능

☞ 참여근로자 기대효과

- 1 스펙 쌓기 없이 조기 입직 가능
- 2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이수를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

※ 더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일학습병행 블로그 검색 또는
고객센터(1644-8100)로
문의해주세요.



일터에서 배우는 현장 기반 훈련

일 | 학 | 습 | 병 | 행

맡은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은 기본, 끊임없는 자기계발은 필수!
2014년 일학습병행'제'로 시작해 2020년 일학습병행'법' 시행까지!

일터에서 일도 학습도 잡는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아보자.

☞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수

· '14년 : 1,897개 · '16년 : 8,492개
· '18년 : 14,110개 · '20년 : **16,430개**
('20.11월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50인 미만 : 11,011개(67.1%)
· 51~300인 미만 : 4,754개(28.9%)
· 300~1,000인 미만 : 542개(3.3%)
· 1,000인 이상 : 123개(0.7%)

! 직종

기계(로봇)
4,832개
(29.4%)

전기·전자
2,285개
(13.9%)

정보통신
2,001개
(12.2%)

경영·회계·사무
1,964개
(12%)

재료
870개
(5.3%)

화학
581개
(3.5%)

기타
3,897개
(23.7%)



WORKER × STUDENT

참여근로자 현황

I 참여근로자 수



I 연령별 수

· 10대 : **31,923명(30.9%)**

· 30대 : **15,091명(14.6%)**

· 50대 이상 : **4,764명(4.6%)**

· 20대 : **44,376명(42.9%)**

· 40대 : **7,216명(7%)**

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 실태조사(2020)

- 1) 현장훈련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움 여부에서 86.4% 참여근로자, 95.3%의 기업현장교사가 '도움이 되었음' 응답
- 2) 사업주의 82.8% 일학습병행을 통해 구축한 교육훈련체계를 훈련종료 후에도 활용할 것.
- 3) 사업주의 92.3% 일학습병행 재참여 희망



기업에 필요한 인재 조기 확보, 일학습병행으로 이끈다

(주)피씨엠



———— 김 용 군 (전기2팀 사원) ————

기계를 정비하는 작업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고장의 원인을 찾는 일은 그만큼 숙련된 기능과 노하우를 겸비해야 가능한 일이죠. 일학습병행을 하면서 배웠던 기술과 선배 사원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활용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일은 입사 후 막막하기만 했던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어느덧 크레인 정비 기술자로 성장한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 김 형 수 (전기2팀 사원) ————

제 목표는 크레인을 혼자 점검할 만큼 직무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비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년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가적 교육은 회사의 교육체계에 따라 Level별 교육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 쌓인 지식을 저처럼 신입사원이 되는 동료들에게 일학습병행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 사원의 기술 전수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OJT에서 벗어나 맞춤형 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는 (주)피씨엠. 기계정비기술 특성상 기초기술 습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저근속자 비중이 높은 점, 중간층 직원의 희소성으로 기술 단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은 이들의 일학습병행 도입을 앞당겼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선택한 (주)피씨엠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현용 (전기3팀 사원)

일학습병행 전에 OJT는 현장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직무를 선임자가 전수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야 기술로 축적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학습병행을 도입 하면서 OJT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습까지 연결되니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근로자와 현장교사가 모여 구룡포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토론 결과가 일학습병행 운영에 반영되니 뿌듯했습니다.



박윤성 (전기2팀 사원)

일학습병행을 1년간 하면서 한 단계 성장한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기업현장교사와의 면담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을 숙련된 기능까지 확대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근로자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주)피씨엠 일학습병행 사업 담당자**정비본부 정비혁신그룹 김광연 혁신팀장 인터뷰****Q.1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피씨엠 일학습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피씨엠은 포항제철소 내 원료하역기, 천장크레인(Crane), 제품선적기에 대한 기계, 전기, 계측 정비를 수행하는 정비 전문회사입니다. 포스코 공동훈련센터 형으로 일학습병행을 도입했고, 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동종기업과의 기술교류회와 국내외 기술박람회 참관, 핵심기술개발 TF,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교육 등 기업현장교사 역량 향상에도 집중했습니다. 매월 CEO가 주관하는 경과보고회를 통해 현장교사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지 않는 관리자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훈련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Q.2 성과를 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피씨엠은 기업현장교사가 가진 노하우를 학습근로자에게 전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습근로자들이 선배 사원과 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역량향상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담자와 학습근로자의 활동성과를 인사고과에 연계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해외연수 등 다양한 보상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한 점도 크다고 봅니다.

Q.3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도입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프로그램의 직무 연관성을 높인 다양한 NCS 과정을 채택했고, 선택능력단위의 비중을 높이고 필수능력단위를 최소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학습근로자 정례회의를 통해 훈련에 대한 피드백과 외부평가 대비 특별 심화교육 등을 하면서 다음 해 외부평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Q.4 일학습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선임자가 예전 방식으로 기술을 전수하려 하니 후임자들이 이를 강압적으로 느끼며 갈등이 높았죠. 퇴사하는 직원들도 생기고요. 일학습병행을 통해 기술 전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의 간담회나 노사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갈등이 해소되며 직원들 만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역량 향상이 경쟁력으로 연결되어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작업 품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상된 직무역량이 성과로 연계되면서 채용직원의 재교육 비용도 9.7백만 원 감소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내준 직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2020년 철강업계 불황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사 이래 전례 없는 경영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피씨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학습근로자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크레인 정비 기술 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본원 경쟁력 향상이라는 커다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피씨엠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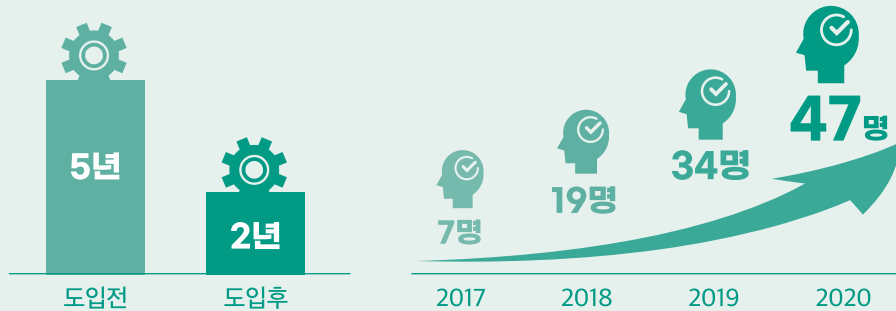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주)피씨엠	업태 및 종목	기계 수선 정비
대표이사	조현진	자본금	3억 원
임직원 수	187명	설립일	2001년 06월 27일
주요 제품	포항제철소 크레인 유지 보수		

일학습병행 성과

▪ Crane 정비 기초기술 습득기간

▪ Crane 정비 숙련기술 확보



훈련직무

산업용 크레인 조종, 기계요소 조립



교육훈련시간

2017년 600시간, 2018~2019년 700시간, 2020년 1,000시간



학습효과

학습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향상, 기업 현장교사의 역량제고, 기업 본원 경쟁력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학습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변화와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정비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직원 하나하나의 기술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지요. 신규 채용직원을 조기에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일학습병행에 모든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피씨엠 대표이사 조 현 진

일과 배움의 균형이 필요한

시대의 도래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이는 맹자의 <이루 상>편에 기록된 말로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뜻이다. 이 성어는 활을 쏘는 찰나의 순간 과녁에 적중하지 못하는 실수를 풍향, 풍속 등 변화하는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과 조직학습 환경에 되새김해볼 만한 교훈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에도 학습을 지속해서 진행하며 스스로 발전하고 혁신할 것을 요구하는 저간의 HRD 트렌드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하자.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직의 업무방식과 개인의 학습 및 삶의 각 영역에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경험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조직의 디지털 전환 요구는 현장에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며 급속도로 확대되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소위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언택트(Untact) 사회는 온라인을 통한 업무방식의 혁신을 이끌었으며, 삶의 각 영역에서 IoT(사물 인터넷) 기





술을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가 가속화됨에 따라 HRD 학습 채널의 다각화, 자기 주도적 학습, 직원 경험 기반의 학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일과 학습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업무에 관한 성과중심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ATD, 2020). 비단 이는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이 달라짐에 따른 조직 관리에 최적화된 새로운 리더십 방식까지 요구하고 있다. 즉, 자발적인 동기와 협업을 끌어내 직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민첩한 리더십(Agile Leadership)**,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업무 목표와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비대면 리더십(Remote Leadership)**, 그리고 소수의 리더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구성원의 상호 교류를 통해 더 신속한 의사 결정과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계 리더십(Complexity Leadership)** 등 각 조직의 최적화된 새로운 맞춤형 리더십이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조직학습의 전통적인 형태인 집합 교육은 이러닝, 마이크로 러닝, 플립 러닝 등의 형태로 진화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업무와 학습을 연계한 **홈 러닝(Home Learning)**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각 조직은 Virtual Classroom, Online Studio 등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며, 새로운 디지털 HRD 시스템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기업교육 예산은 2019년 대비 줄지 않았으나 개인당 훈련시간은 연평균 약 13시간 정도 늘었고, 특히 대기업 집단 기준으로 약 64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Training Industry Report 2020). 특히 HRD 전문가는 비대면 환경의 학습 전달자 입장에서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학습



하고 새로운 교수법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조직이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을 이뤄냈지만, 학습에 관한 교육 공학적 역할을 넘어서 조직 내 협업과 상호작용, 지식공유에 관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협업·신뢰 문화 확산,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Blue가 결합한 신조어), 즉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하여 HRD의 영역은 조직전략에 기여하는 학습 목표 및 효과적인 교육 설계와 더불어 학습자의 상황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첩한 대응력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World Economic Forum의 The Future of Job Reports 2020은 공감 및 감성경영, 코칭, 커뮤니케이션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핵심 스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대면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성과 교류에 관한 세심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HRD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 조직 내에서 지난 10년 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일과 배움의 균형(Work-Learning Balance)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반구저기(反求諸己). 코로나19로 변한 HRD의 환경은 변하였지만, 이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향후 HRD의 역할과 기여에 관하여 스스로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통에
기술을 더해

**새로운 복식문화를
피워냅니다**

대한민국 명장
‘김옥수우리옷’ 김옥수 대표

김옥수 대표에게 한복이란 전통문화를
계승하되 새로운 변화를 덧대 시대의 흐름을
유연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MASTER HAND



SKILL

꿈 따라 펼쳐진 한복 인생 40년

우리 고유의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이름 ‘한복’. 그 속에는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거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한복을 만드는 손길에 신중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를 재현해낸다는 묵직한 중압감. 그런 면에서 김옥수 명장의 도전정신은 특히 돋보인다. 오랜 전통에 자신만의 기술을 입혀 새로운 한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된 기술과 해외 전시, 패션쇼 등을 통해 술한 활동을 이뤘은 그는 지난해 한복생산 부문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지난 40여년간, 한복을 만들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던 순간이었다.

“어릴 적부터 직접 의상실을 꾸리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양재학원에 등록하게 된 건 다른 이유지만요. 집안형편에 문제가 생겨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절망감도 느꼈지만 어쨌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무조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게를 처음 열었던 것이 1981년인데,

제 솜씨가 제법 괜찮았는지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런데 한복점 운영으로 경제적 안정을 맞이하며 남은 건 순탄대로를 걷는 것뿐이라 생각할 즈음 어떤 그리움이 그를 찾아왔다. 미처 잊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던 학업에 대한 갈증이었다. 과연 미래에도 한복사업이 잘 될지, 혹여 감각이 물러져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 아닐지에 대한 불안감이 이를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충족하려면,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자 더 이상 판단을 미루기가 어려웠다. 결국 늦깎이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으로 진학한 그는 자식 또래의 학생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패션디자인 공부를 했다. 물론 학업은 한복점 운영을 병행하면서 이뤄졌다.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 그는 새로운 학문을 터득해 나가며 더 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KOREA



약력

- 2000 제1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전 대상
- 2003 한복산업기사/ 패션직업
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 2004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한복부문 심사위원
- 2009 대한민국 한복침선 문화상품
공모대전 심사위원
- 2016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현)
- 2017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정책사업 성과모델
개발 전문위원
- 2018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 201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현)
- 2020 대한민국 명장(한복생산) 선정

맞춤형 한복으로 고객을 사로잡다

성공케도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한복점에 변화를 시도한 것도 그 이후의 일이다. 그는 이미 한복 제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지만, 대학 진학 후 더욱 깊이 있게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연구하면서 한복 제조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만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평면에서 옷본을 뜨는 대신, 여러 체형을 구현한 바디모형을 통해 맞춤형 한복을 제작하는 ‘입체제도’ 방식의 제조공정을 도입했다. “여기 체형별로 구비된 기본 바디모

형을 기본으로, 고객의 정확한 체형을 본떠 한복을 만듭니다. 가령 허리둘레가 넓은 고객이라면 바디모형에 솜을 덧대 허리를 부풀린 다음, 이에 맞추어 한복을 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완성된 후 고객이 착용했을 때 뜨는 부분 없이 아주 잘 맞습니다.”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한복 모양도 다르다고 믿는 그의 한복점엔 동정이며 깃 등의 샘플만 수십 가지다. 각 고객별 체형의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완화하는 맞춤형 한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상체는 작는데 얼굴이 큰 사람에게는 동정 폭을 평소보다 좁게 만들어 주는 식

이다. 고객마다 동정의 각도도 달리 만든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막상 이 작은 차이가 실제 입었을 때 큰 차이를 만든단 사실을 아는 손님들은 요즘도 변함없이 김옥수 명장을 찾는다. 그에게 오랜 고객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복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치수 정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외에도 목둘레나 상동, 진동 등 치수를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하는 편이에요. 정보가 촘촘해야 어떻게 체형을 보완할지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파 한다는 자부심으로

학업을 잊지 못한 아쉬움에 시작한 대학생활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학문으로서 더욱 심도 있게 패션디자인에 접근하고 싶었던 그는 이후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을 응용한 현대한복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거쳐 중국에는 「감물염색직물의 발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그의 업무 영역은 더욱 확대돼 궁중복 제작기법 연구, 고분출토 복식 재현 등의 업무를 맡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김옥수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오르는 날이 찾아왔다. 지난 2011년 한국-네덜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 패션아트 페스티벌에서 개막쇼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당시 네덜란드까지 옮겨야 할 짐이 어마어마했어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대례복을 비롯해 공주의 혼례복, 상궁의 예복 등 여러 궁중의 상과 이에 맞는 장신구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날 제가 준비한 무대를 감상해주신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며 경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 노고는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전통복식을 재현하고 국내외 한복 패션쇼에 작품을 올리는 한편 미래 한복 전수자가 될 학생들을 위한 취업·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산업현장교수로서 패션 관련 기

업 재직자들에게 한복 제작기술을 전수하는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특허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총 22건. 그중에서도 소매와 겨드랑이의 이염을 방지하는 특허권은 관련 기업에서 소유권 이전을 문의해올 정도로 그의 시간과 노력이 깊숙이 배어있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아직은 상품개발 단계로 진행시키지 못했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면 될 때까지 도전하고야 마는 그의 성격상 언젠가 뉴스를 통해 이 제품의 시장 출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한복은 전통의상이지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90년대 들어 한복 소재가 얇아지며 바느질 방법에도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요. 바뀌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옛것을 익히되 어떻게 현대에 맞게 적용해나갈지도 고민해야죠. 제가 자꾸만 무언가에 도전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HANBOK MAKING



S모드자/암홀자

옷본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특히 곡선을 그릴 때 유용



곡자

바지 옆선 등 유연한 선을 그릴 때 사용



핑킹가위

시접이 풀리지 않도록 정리할 때 사용



깃본

한복 깃을 만들 때 사용

문화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일의 묵직한 책임감을 양분 삼아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어가는 명장의 섬세한 손길. 김옥수 명장이 보여준 한복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해진다.



자격증 그 이상의 가치



동아리에 활기를 불어준 관광통역안내사

‘전쟁으로 황폐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발전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다’, ‘엄청 재미있었다’. 학생의 ‘엄청 재미있었다’라는 말만큼 교사에게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있을까? 지루하기 짝이 없던 나의 동아리 시간은 적정 인원을 넘겨 더는 받아줄 수 없을 만큼 학교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다. 이 모든 마법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만난 순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

* 2020년도 국가자격취득 수기를 전합니다.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전합니다.

☞ 쳇바퀴 같은 일상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자 권태감이라는 단어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능 이후 3학년의 영어 시간은 거의 빈 교실에 대고 라디오 틀어놓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렀다가는 바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라는 민원이 들어온다. 영어 수업시간에도 이런 식인데 하물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동아리 수업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통상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사 본인의 과목 특성에 맞춘 동아리를 개설하길 원한다. 이러니 영어 교사인 나의 선택지 자체는 그리 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등학교 영어 교사 경력이 관광통역안내사 영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

그때부터 과감히 서점에서 필기 문제집을 구매하고 독학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오답 노트 만드는 작업을 반복했다. 만드느라 얼마나 가위질과 풀칠을 많이 했는지, 손아귀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다. 물론, 이건 내가 문제를 많이 틀린 탓에 정리할 게 그만큼 많아서였다. 그렇게 필기 공부에 지친 와중에, 국내여행안내사도 동일한 필기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 국내여행안내사도 따자는 마음에 용감하게 자격증 두 개를 한꺼번에 접수했다. 당일 오후 가채점 결과가 합격선에 든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실기까지 붙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명색이 영어 교사인데, 영어로 말하는 시험을 포기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나도 이렇게 극복했다고 할 만한 성공담이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실기까지 시간은 너무 촉박한데, 양은 많고 그렇다고 전부 모범 답안을 외울 수도 없는지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반드시 정보를 외워야만 하는 문화유산, 의견을 묻기도 하는 관광지식, 절차를 알아야 하는 가이드 실무 등으로 주제를 분류해서 말하기 양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주제와 키워드를 적은 뒤 약 두 달간 틈만 나면 말하기 연습을 했다.

안녕

Привет

Hola

18

こんにちは

Hallo



☞ 문화홍보대사반 동아리 창설

유여곡절 끝에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를 모두 취득하자 열심히 공부했던 걸 그냥 썩히는 게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서울 시내의 문화유산에 대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영어로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다.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기초정보를 영어로 배우게 된다. '역사'나 '한국지리', '일반사회' 등의 과목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배우지만, 막상 대한민국의 인구, 면적, 길이와 같은 정보나 공휴일, 화폐의 인물 및 도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걸 훨씬 궁금해하는데도 말이다. 다음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 영어로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많다는 데서 학생들은 벌써 놀라는 눈치다.

☞ 실습을 위한 문화유산 탐방

이렇게 기초지식을 쌓은 후 문화유산 탐방에 나선다. 다행히도 학교가 서울 강북에 있어 창덕궁, 종묘, 정릉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근방이고 서울성곽은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아울러 인사동, 북촌, 익선동, 서촌 등의 관광지도 가깝다. 학사일정에 따라 다른데,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지하철을 타고 코엑스와 선정릉, 봉은사, 롯데월드까지도 탐방한다. 탐방 전에 학생들은 영어로 문화유산 소개문을 써보고, 문장을 수정하여 돌려주면 돌려받은 소개문을 들고 탐방하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대로 소개문을 고친다. 그리고 완성된 소개문을 연습하여, 나중에는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로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로나19로 찾아온 동아리 위기!

2020년 초,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탐방이 주된 활동이던 나의 동아리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영상 수업에 맞추어 동아리 구성을 바꾸었다. 탐방을 할 수 없는 큰 제약이 생겼지만, 그 대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까지도 학습에 포함할 수 있었다. 그간 몰랐는데 문화재청, EBS 등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정교하게 소개한 영상 자료가 놀랍게도 많았다. 그래픽태블릿과 전자펜 및 녹화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문화유산 설명 영상을 촬영하고, 탑재한 뒤 초조한 마음으로 수업 반응을 기다렸다.

반응은 정말 좋았다! 이 글 첫머리에 나열된 문장들은 현재 온라인 동아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정말 고맙게도 온라인으로도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즐겁게 학습하고 있었다.

☞ 풀뿌리 외교관 길러내는 것이 목표

이처럼 관광통역안내사는 나에게 혁신적인 동아리 운영을 가능케 해주었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질곡의 세월을 거쳐 오면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학습했던 장소들을 기억하여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이리이러한 점에서 가치 있다고 했지' 하면서 내용도 되새기고,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소개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풀뿌리 외교관'을 길러내는 것이 내 국가자격 취득의 최종목표이다.

ciao

Hello

हाय

19

salut

ابحرم



‘위기상황에서 당신의 생존 전략은?’

산업지원부 무인도 생존일지 도전

‘생존방식을 통해 본 나의 기질은?’

전략 수립과 공유를 통한 의사소통 강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이어 신규 사업인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을 이끄는 산업지원부. 이들은 전형식 부장을 주축으로 이진희 과장, 황현웅 과장, 김수희 대리, 박정태 대리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의 미션은 나만의 생존 전략으로 섬에서 탈출하기!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된 무인도부터 오로지 수풀만이 우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생존’해야 할 때,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가를 보면 개개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러한 의사결정과 맞닿아 있다. 산업지원부에 주어진 오늘의 미션은 바로 ‘무인도에서의 생존’. 저마다의 기질을 발휘해 무인도 탈출에 성공한 산업지원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진 극악의 무인도까지. 저마다 떠올린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들은 다섯 장의 카드를 선택해야 했다. 응급의약품 세트부터 위성 전화, 나침반, 돋보기, 구명 보트 등 전략에 따라 꼭 필요한 물건일 수도,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20종류의 카드에서 나름의 이유있는 선택이 이어졌고, 이 외에도 ‘블랭크 카드’를 통해 선택지에 없는 나만의 전략을 그려내기도 했다.

이들은 어떻게 무인도에서 탈출하리라 전략을 세웠을까. 응급의약품 세트를 최우선으로 골랐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서 김수희 대리에게는 ‘씨앗 묶음’이, 전형식 부장에게



무인도 생존일지를 통한 HRD



팀 빌딩

저마다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우리 팀의 생존
전략을 구축해봅니다.



커뮤니케이션

생존 전략의 차이를 통해
다른 경험, 지식,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의사결정

서로 다른 전략과 사고가
하나로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 생존일지 활용법

무인도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 탈출을 시도할까요? 생존을 위해 정착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관광을 선택할까요? → 총 20종류의 카드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개 카드를 뽑아 생존 전략을 적고 함께 교류해보는 게임입니다! → E(Escape, 탈출), M(Mayday, 구조), S(Settlement, 정착), V(Vacation, 여행) 등 카드 끝에 적힌 코드의 개수로, 구성원의 생존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는 '세계지도'가 필요했던 반면 박정태 대리에게는 '삽'과 '구명보트'가 필수품이었다. 또한, 황현웅 과장은 유일하게 '고급카메라'를 필수품으로 선택해 생존 시 무인도에서의 영상을 활용하겠다고 전했고, 이진희 과장은 심신 안정을 위한 'MP3 플레이어', '휴대용 고데기' 등을 선택해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와 침착함이 돋보였다.

같은 선택지일지라도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저마다의 생존을 공유한 이들. 무엇보다 전형식 부장의 '무인도에서도 세계지도를 통한 독서와 별자리 감상을 하겠다'라는 말은 팀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생존 전략은 달랐지만, 그래서 더 짜릿했던 산업자원부의 탈출기! 어떠한 위기에서도 다섯이 뚝뚝 뭉친다면, 최단시간 현명하게 돌파구를 찾으리라는 기분 좋은 확신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People



(위) 황현웅 과장, 김수희 대리, 박정태 대리,
(아래) 전형식 부장, 이진희 과장





탈출을 꿈꾸는
몽상가
전형식 부장

“별자리용 세계지도 하나는 챙겨야죠.”

- 블랭크(라이터 or 부시들) : 보호 및 난방
- 다양한 씨앗 묶음 : 생존, 거름은 직접 생산
- 대형 반사경 : 조난 신호
- 세계지도 : 여가(독서) 및 별자리, 길찾기용
- 구명보트 : 탈출 및 낚시용

“살아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무인도에서의 모습을 카메라로 기록하겠습니다.”

- 응급의약품 세트 : 생존 필수품
- 블랭크(맥가이버 칼) : 요리, 호신, 제작, 예술
- 대형 반사경 : 구조 신호용, 촬영용
- 조명탄 : 구조 신호용
- 고급 카메라 : 무인도 브이로그 촬영용

구조를 기다리는
여행가
황현웅 과장



구조를 기다리며
탈출을 시도하는
전략가
박정태 대리

“곱슬머리에게 휴대용 고데기는 필수!”

- 응급의약품 세트 : 비상상황 대비
- 위성 전화 : 통신이 된다는 가정 하에 구조 요청
- MP3 플레이어 : 심신의 안정
- 휴대용 고데기 : 곱슬머리 정돈
- 블랭크(뽕) : 끼니 보충

여행하는
낙천주의자
이진희 과장



“동물과 최소한의 식량이 있는 무인도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다양한 씨앗도 필요하고,
불을 지필 돋보기도 필요해요.”

정착도 두렵지
않은 평화주의자
김수희 대리

- 응급의약품 세트 : 비상상황 대비
- 석궁 세트 : 사냥 도구
- 다양한 씨앗 묶음 : 생존 식량
- 나침판 : 방향에 따른 생존 모색
- 블랭크(돋보기) : 불 생산용



“삽으로 채집, 수렵, 집 짓기,
호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응급의약품 세트 : 위급상황 대비
- 대형 반사경 : 불, 구조 요청(빛 반사 이용)
- 블랭크(삽) : 채집, 수렵, 집 짓기
- 구명보트 : 구조선 탑승을 위한 용도
- 조명탄 : 야간 시 구조 요청



산업지원부 전형식 부장 인터뷰 산업지원부를 소개합니다!



Q 공단에서 지역산업별 지원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서 산업지원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지역산업별지원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17개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Regional Skills Council)와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Industrial Skills Council)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공급자 위주의 인적자원개발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없애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15년 4월, 정보기술·사업관리ISC, 경영·회계·사무ISC, 금융·보험ISC 등 11개의 ISC를 시작으로 한 제1기 ISC사업('15~'17)은 동년 7월과 '16년 9월, 디자인·문화콘텐츠ISC, 조선·해양ISC 등 6개의 ISC를 추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제2기 ISC사업('18~'20)은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 ISC인 환경ISC를 2020년 4월에 선정함으로써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제2기 ISC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3기 ISC사업('21~'23)을 수행할 산업별 협·단체를 공개모집하고있으며, 역량 있는 많은 협·단체가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8개 ISC에 564개의 기관·기업이 참여 중이며 전체 산업범위의 63.2% 포괄(NCS 소분류 및 '20년도 기준)

Q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해당 산업분야에서 향후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크지만, 고가의 시설 장비 등의 사유로 산업계·기업이 원하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고자, 산업별 협·단체와 훈련기관이 함께 훈련 수요조사부터 훈련과정 설계, 훈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신규 훈련사업입니다. 다른 훈련사업과 차별되는 사항은 훈련이 청년(만 18세~34세)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자동차, 스마트공장, 관광·레저 등 9개 분야에서 자동차산업 보전분야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 87개 과정을 실시하여 1,909명에게 맞춤형 훈련을 했고, 올해는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지원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나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누리보듬 김시윤 대표

지역민들을 위한 특화교육 실현과 일자리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된 사회적기업 (주)누리보듬. 2014년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채로운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역 평생교육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비대면교육과 기념품 개발 등 사업영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김시윤 대표를 만났다.

☞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여쭙보고 싶어요.

☞ 아이들이 제 손을 덜 필요로 하게 됐을 즈음,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마흔넷이 되던 해였죠. 당시만 해도 사업체를 꾸릴 계획은 없었는데, 교내 학생들과 그룹스터디를 하며 리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언젠가부터 ‘어떻게 하면 이들 각각이 지닌 색깔과 장점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이들과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누리보듬의 창립멤버 네 명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예요. 모두 일하고자 하는 열정은 충만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죠. 평생교육사업은 전공을 살리면서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접점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 공익 기여도가 큰 회사여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조건도 타당했겠네요.

☞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위한 영업활동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등 사회적 책무도 다해야 해요. (주)누리보듬의 주요사업군은 평생교육이고, 수업을 이수하면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도 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니 기업 구조 자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한 셈이죠. 실제로 저희가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 사업 초기를 회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 이전까지 제가 하던 일은 기업 경영관리 업무였거든요. 그래서선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큰 걱정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교육과 관련해 대단한 스펙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뭐든 마음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모조리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분야나 교육사업에 참고할 만한 것



들을 늘 체크하고 다녔어요. 그때의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죠. 다행히 2014년 (주)누리보듬을 설립할 당시의 울산은 아직 평생교육사업이 보편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천 교육에 적용하는 일도 무척 즐거웠고요.

☞ 처음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한국사 교육이죠?

☞ 맞습니다. 한국사 교육은 (주)누리보듬의 시작점이자 지금까지의 가장 큰 성과물이에요. 시작 타이밍도 좋았죠. 저희가 시작할 무렵이 서울대학교에서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던 시점이었어서 관심이 높았거든요. 베이비부머 평생학습사업인 ‘역사는 히(his-tory)스토리다’, 다문화가정 평생교육사업인 역사북아트 ‘먼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 등이 사업 초기 울산지역 평생교육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입니다.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수업 이수 후 강사로 설 기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평생교육, 방과후수업, 체험교실(고래문화마을), 바우처사업 등 각 수업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사업은 보통 어떤 형태로 진행하나요?

☞ 교육기업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맡으려면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수주해야 해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뒤 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역문화센터나 도서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간혹 기업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요.

☞ 그동안 만난 수강생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들이 있나요?

☞ 아마 다른 강사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텐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다거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분들이요. 직접 스터디그룹을 꾸려 공부하는 분들도 있죠. 의욕이 대단한 분들에게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다가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을 더 받고 아예 독립적인 교육사업체를 꾸리는 분들도 있어요. 내부 직원으로 채용했던 분이 더 머물러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제가 기획한 수업이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한 거니까요. ㈜누리보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각자 맡은 분야를 성실히 하고 계신 덕분에, 저희 쪽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연락도 자주 옵니다.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변화가 찾아올까요?

☞ 사람들과 대면하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하긴 했지만,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모형을 찾아야 한다는 생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각이 듭니다. 요즘은 언택트가 대세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교육프로그램에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엔 필수적인 변화예요. 외부 선생님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보며 따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보내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죠?

올 초부터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면 마스크를 만들어 타지역이나 아프리카, 인도 등 해외에도 전달했죠. 지자체나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손 소독제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했어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들도 여러 나눔활동을 하실 거예요.

분야를 확장해 교육사업 외에도 패브릭을 활용한 소품이나 관광기념품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엔 캐릭터 제품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올해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래문화마을 내에 어린이체험교실 매장을 별도 운영해요. 지금은 수리 중이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그동안 다양한 관광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왔죠.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액자, 가방, 옷, 달력 등 다채로운 상품군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 관심을 두고 있던 차에 울산 북구청과 캐릭터 상품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어요. 저희 직원 중에 홈페이지 등 재봉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북구청에서 고유 캐릭터인 '쇠부리'를 활용한 소품 제작을 문의한 거예요. 아직은 구상하는 단계여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울산에 있는 여러 문화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죠. 5월 중에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 상생협력관 사업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 확산)

기업 혁신 성장
지원



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



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



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성과
확대 지원

?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기업 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 관리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 가능

홍보효과 UP!

멀리 있어도 결코 멀지 않은

우리나라 동쪽의 섬,
독특한 경관과 원시적인 생태계를
갖추어 아름다운 이곳.

배를 타고 다다르면,
바닷내음이 가장 먼저 반기고 육지와
같은 능선들이 다음으로 손짓한다.

다가서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멀지도 않은 곳.

멀리 있어도 결코 멀지 않은 이 섬처럼
우리도 각자의 섬을 갖고 때때로
마주하며 곳곳이 살아간다.



울릉도

경상북도 동북단 동해상에 위치한 군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동해바다를 지키는 외로운 섬으로 불릴 만큼 인적이 뜸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섬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2025년 울릉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이 열리면, 서울에서 울릉도 간 이동 소요시간은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도동1길 5-3



탈 탄소 사회를 이끄는

**녹색 패러다임,
그린뉴딜**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친환경 전환

*Green
New Deal*



인류는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일련의 활동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했다. 이 위기가 끝내 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 탄소 배출 기반 산업 구조의 재편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과 노동까지 혁신하는 것이 골자인 정책이다. 탈(脫) 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오늘, 녹색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트렌드를 살펴본다.

Step.1 탄소 중립이 좌우하는 지구 존립



오늘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낳았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흡수·제거하여 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120여 개 국가가 이를 선언하거나 이미 추진 중이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은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큰 책임이 있는 4대 핵심 부문인 정보 통신 기술(ICT), 전력 및 전기 유틸리티, 운송 및 물류, 건축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대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그린 에너지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내연 차량 대신 전기 차량에 주목하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 예다. 이처럼 주요 산업 분야가 탄소 제로 기술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화석연료 산업 문명 역시 조금씩 붕괴되며 에너지산업에 큰 변곡점을 그리게 될 것이다.

Step.2 청년들이여, 녹색 기회를 잡아라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원년의 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저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뉴욕시에는 기후활성화법을 통해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2050년까지 새로운 144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의 급진적이고 대대적인 전환 과정은 일부 사라지는 직업을 만들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 분야인 금속산업·운송산업·건설산업 등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그린 마케팅을 위한 환경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인식에 역시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Green New Deal

관련 직업 & 자격증 돋보기



02 건강지구, 건전기업을 위한 조연자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을 세우고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영 방향을 자문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환경 인프라 확보 방안을 조언하고,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직접적인 활동을 할 시 의사 결정을 도와준다. 주요 고객으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온실가스관리기사 :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보고하고 감축 활동을 기획·수행·관리할 수 있는 자격

01 환경지식을 알려주는 생태 도슨트 환경교육사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로, 주로 자연생태계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힐링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한다. 생태 지식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다양한 환경 쟁점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수목원, 생태체험관 등에서 자연 접목 프로그램 기획자나 환경교육 강사로 일한다.

! 관련 자격

사회환경교육지도사(환경부)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을 수행하는 자격

03 다시 세우는 초록빛 터전 생태복원 전략가

자연생태 관련 법률 및 제도, 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교란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습지, 하구, 수변, 도시 등 오염된 자연생태를 분석하고 복원한다. 토목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 환경복원 전문업체,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관 등에서 일한다.

! 관련 자격

자연생태복원기사 :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훼손된 생태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하는 자격

04

탄소 제로 도로가 열린다 전기자동차 개발자

자동차,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를 연구·개발하는 전문가다. 전동기를 주동력 또는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핵심부품 등의 제작, 성능평가,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 일한다.

① 관련 자격

그린전동자동차기사 : 전동자동차 및 그 핵심 부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

06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내일 공해방지 전문가

인간 활동에 수반되는 여러 오염 유발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억제·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다. 폐기물 처리, 수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요소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복원시키는 공학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환경공무원,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체, 기업의 환경 관련 부서 등에서 일한다.

① 관련 자격

환경위해관리기사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감 대책을 수립·관리할 수 있는 자격

05

사람과 자연이 안심하는 그린 빌딩 친환경 건축가

친환경 건축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원의 배출량이 적은 그린빌딩(Green Building)을 짓는 건축가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설비나 하수 및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기도 한다.

① 관련 자격

건축기사 : 기본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07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주인공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또는 관련 기술이 적용된 건물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설계, 시공 및 감독, 작동상태 감리, 그리고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① 관련 자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발전소 및 관련 시설 등을 기획·설계·시공·유지·보수하는 자격

머무르고 싶은 ‘집’ 만들기

‘집콕’이 불러온 홈인테리어 트렌드

당연했던 일상이 소중한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공간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요즘, 사람들은 집에 주목하고 있다. 집을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홈인테리어 트렌드를 살펴본다.



HOME
INTERIOR

다양한 기능을 입다, 레이어드 홈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집을 주거만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먹고 자는 집의 기본적인 기능에, 새로운 기능들이 다층적으로 더해진 '레이어드 홈(Layered Home)'이 등장한 이유다.

대표적으로 재택근무로 인해 집의 한 공간을 사무실처럼 꾸미는 홈오피스, 캠핑 장비들로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집에서 여행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홈캠핑, 전문적인 기계와 감성적인 연출로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등이 있다. 몸 만들기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만의 작은 체육관인 홈짐을 꾸며볼 수 있다. 홈트레이닝을 위한 기본 아이템은 매트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소음을 막는 효과도 있다. 정확한 자세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신거울도 필수품이다. 또한, 본인의 필요나 체형에 알맞은 소도구나 운동기구를 마련해도 좋다.

싱그러운 자연을 내 집 안으로, 플랜테리어

'플랜테리어(Planterior)'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식물을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의 한 방법이다. 도시 생활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플랜테리어는 최근 그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 안에서 자연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플랜테리어는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플랜테리어가 대중적으로 확산하면서 식물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단순히 식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머무는 공간에 맞춰 식물을 선정하고 식물이 놓일 공간까지 잡아준다. 가장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플랜테리어는 반려식물 키우기다. 몬스테라는 크고 시원한 잎이 주는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환경 변화에 예민하지 않아 초보도 키우기 쉽고, 공기 정화와 가습 효과도 탁월하다. 화분을 높은 곳에 매달아 키우는 행잉플랜트는 좁은 공간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아 싱글족이 특히 선호한다. 식물에 따라 흙이 없거나 6개월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되는 등 관리가 쉬운 편이다.

인테리어 렌탈로 늘 새로운 집

집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구독 경제가 인테리어 시장에도 본격화되었다. 구독 경제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새로운 소비문화다. 기존의 소형가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독 서비스 영역이 매트리스, 침대, 소파 등 가구로도 확대되었다. 업체에 따라 가구와 가전을 결합한 구독 상품을 운영하기도 하고, 가구와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도 구독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은 계약기간 동안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용료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고 보수 및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미술품을 구독해 예술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아트 렌탈 서비스나, 마치 호텔을 연상시키는 침구를 매달 깨끗이 세탁해 배송해주는 렌탈 서비스 등도 인기가 높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2015년 대기업에 입사했다. 4학년 때 해당 기업 장학생에 선발되었고, 인턴 생활을 했기에 회사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걱정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많은 시간이 지나있었고, 28세 마지막 12월이 되었다. ‘나’를 되돌아보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내 가족이 내 장례식장에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답이 나왔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나의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가 팡랩의 공지를 봤다. 해외 개발도상국에 파견 나가 3D 프린팅, 아두이노 코딩, CNC 머신 등 디지털 교육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KOICA의 투자금으로 진행되었고, 키르기스스탄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스타트업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과제는 비슈케크 수도에 있는 대학교 KSTU(Kyrgyzstan State Technology University) 내에 1)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2) 수업 자료 및 데이터 구축 3) 교수와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4)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동아리를 운영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2019년 1월부터 3개월간 팡랩 서울에서 메이커스페이스의 장비 교육,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해 배웠다. 나를 포함한 3명의 후보는 3월 초 발표평가와 영어 면접을 했고, 나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

3월 15일 회사를 나와 3월 18일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했다. 그리고 3월 말, 함께 일할 인원을 충원하고 사무실 구축을 위해 책상, 프린터 등 집기 구매를 했다. 키르기스스탄 지부 KOICA,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굿네이버

* 2020년도 성공 해외취업 수기를 전합니다.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전합니다.



스(NGO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며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 공유와 자사 사업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4월이 되었다.

4월 초 2주간, KSTU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공사할 건설업체 입찰을 진행했다. 이후 디지털 장비 구입도 진행했다. 팹랩 사업현지 행정 담당자 KSTU 소속 베네라(Venera) 부장은 키르기스스탄에 들어와도 장비를 받기까지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미 원조사업을 하고 있던 독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KOICA 이사의 방문이 잡혀있는 7월 초까지는 반드시 장비 설치가 끝나야 했다. 베네라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출발한 디지털 장비는 7월 3일 키르기스스탄 공항 터미널에 도착했다.

주 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의 대사는 팹랩 사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 대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화물을 받았고 학교에 도착해 행사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야 퇴근했다. 베네라 부장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성취욕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보기에 한국인의 일 처리 속도는 놀라웠던 것이다.

2019년 7월 18일, KSTU 총장과 KOICA 이사는 함께 팹랩 비슈케크(Fablab Bishkek)를 찾았다. 팹랩 준공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선정된 교수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9월 한 달 동안 시제품 제작을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교수들은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느꼈고 학사 일정을 조율해 9월에 재교육을 받기로 했다. 2019년 9월 개학과 동시에, 선발된 대학생 대상으로도 교육 일정이 있어 업무량은 2배로 증가했지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다행히 학생들은 수업 이해도가 빨랐다. 속도감 있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

팹랩 프로젝트의 본질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인적자원을 개발하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열정으로 무장된 학생들은 매일 팹랩을 방문하여 시제품 제작에 몰입했으며, 팹랩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9년 12월 홈커밍 데이, 창업동아리팀의 시제품 시연이 있었고, 수업을 수강했던 교수, 학생들을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 팹랩 프로젝트의 1년 차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2019년 12월의 키르기스스탄은 세계 1위의 공기 오염 국가였다. 겨울날, 공기 오염은 편서풍을 통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확산하여 간다. 지구는 국가라는 인위적인 경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환경은 국경을 상관치 않는다. 그렇게 최악의 공기오염을 경험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느낀 것이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화장도구에 전기·전자를 결합하여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한다. 쿠션 용기를 영구재로서 사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은 세상을 확장하여 바라보는 자양분이 되었다. 삶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그 본질은 우리와 같았다. 지구라는 걸면에 웅기 종기 모여 사는 인류는 경계를 만들고 구분하여 네 것과 내 것을 한정하여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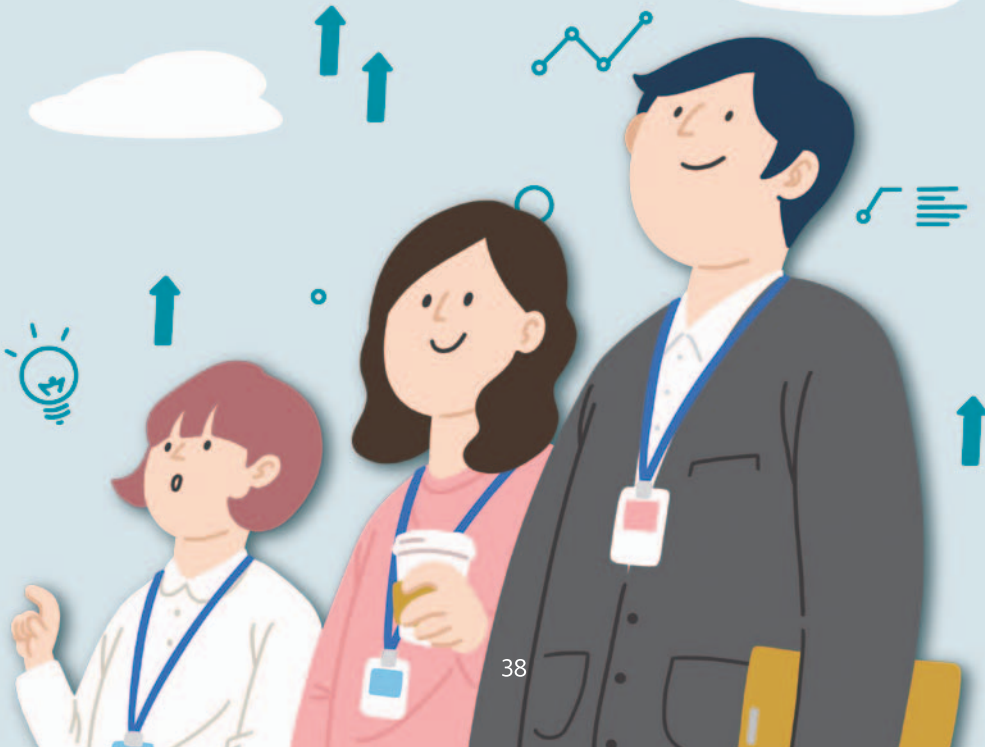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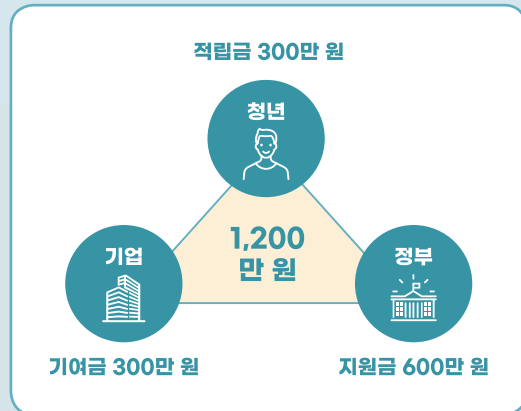
300만 원 저축하면?
1200만 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력의 고용 유지 효과를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을 빠르게 전하는 '고용브리핑 365'에서 2021년 새로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만 15세~34세 이하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사업장
- 벤처기업 등은 1~5인 가능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 👉 예산 확대로 10만 명 신규 지원 예정
- 👉 기존의 2년형·3년형이 폐지되고 2년 만기, 1200만 원 적립으로 통합
- 👉 일반적인 휴업 등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 수급 가능
- 👉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과정 및 방법은?

1.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2. 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3. 기업에 알리고 기업과 청년, 동일한 운영기관으로 신청
4. 운영기관(기업)에서 워크넷 인증 후 서류 제출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 통보 및 청약 신청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생활 속 청렴, 사소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넛지(Nudge),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행동경제학자로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한다. 옆 사람의 팔을 잡아끌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팔꿈치로 톡 치면서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의미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놓는 아이디어만으로 소변기 밖으로 새어 나가는 소변량을 80%나

줄일 수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야 한다’, ‘소변을 흘리지 마십시오’ 등 구호를 구체화했다. 사소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발상이다. 앞으로 오라고 할 때는 안 오지만 파리 스티커 하나, 발판 하나가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동장군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버스정류장 곳곳에 설치된 추위 바람막이가 잠시나마 온기를 누리게 한다. 지구 온난화인가? 이젠 여름날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 것은 다반사다. 횡단보도 앞 그늘막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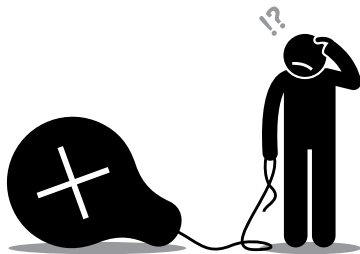
모 구청에서 설치한 사소한 그늘막과 추위 바람막이는 이제 전국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에서 어김없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계단을 밟으면 음악과 레이저 불빛이 나온다. 건강한 걸음이라는 것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나가려면 바닥에 분홍색, 녹색 등 선을 그려 놓았다. 운전자를 안전하게 안내한다. 장수 의자도 있다. 횡단보도에 교통약자를 위해 모 파출소장이 생각한 것이다.



모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다.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고 여느 때와 같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옆에 있는 휴지로 자신의 손을 닦는다. 옆에 있던 동료는 손을 닦은 휴지로 세면대 튼 물기를 닦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물기를 닦듯이. 동료의 작은 행동은 그 직원에게 공감으로 다가왔다. 본인도 같은 행동으로 물기를 닦았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모든 직원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었다. 한 직원에게서 시작된 행동은 단순히 물기를 닦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휴지 한 장이라도 재활용하며, 다음에 사용할 동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있다. 남미의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이르러서는 토네이도 태풍을 일으킨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 스티커, 대기번호표, 장수의자, 계단과 도로에 그려 놓은 선 하나, 사소한 물기 닦기가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 내가 교통질서를 지키면 다른 사람도 따라 한다. 누군가 시작한 이 사소한 발상과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청렴은 부패가 아니다. 부패는 하지 않은 것이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 담합 등. 청렴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君君臣臣父父子子’처럼 각자(기관)의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적극행정, 혁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명장(名匠) 등. 사소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청렴은 남을 탓하기보다 나부터 사소한 것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생활, 업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



HRDKorea MAGAZINE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EWS

2021
FEBRUARY
vol. 296

02



모바일 국가자격증 발급 및 연계 서비스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 체결

공단은 1월 1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바일 국가자격증 발급 및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네이버-카카오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하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서비스와 자격정보 활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검정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이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지원한다.



2020년 청년해외진출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간

공단은 1월 11일(월), 미국 등 16개국에 진출한 27명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월드잡플러스와 함께)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총 27편의 이야기는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영상 부문 수상작 7편은 작품집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제15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Un+Contact' 아이디어 공모

공모주제

2021년 대면·비대면 병행 행사로 성장하는 '인적
자원개발 컨퍼런스' 기획·운영 전략 아이디어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참여)

시상내용

시상내용	선정	상금	훈격
대상	1개 작품	100만 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이사장
최우수	1개 작품	80만 원	
우수	2개 작품	50만 원	

제출서류

①공모전 참여 신청서 1부

②아이디어 제안서*

*표지(1매), 세부실행계획서(5매 내외)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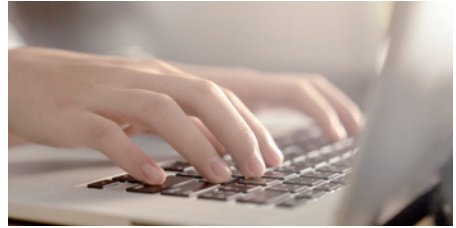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이윤주 과장

· 메일: hrd_festival@hrdkorea.or.kr

· 우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44538

· 문의 052-714-8214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서비스 오픈

공단이 NC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직무
중심 경력개발경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단은 지난 '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NCS
빅데이터 개선 사업'을 완료해 '직무능력기반 개인
별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를 NCS 누리집(www.ncs.
go.kr)에 오픈하였다. 이 서비스는 NCS 누리집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통합직무능
력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직무능
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는 개인이 이
수한 교육·훈련·자격·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입력
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
력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에이치알디넷(www.hrd.go.kr), 씨큐넷(www.
c.q-net.or.kr), 워크넷(www.work.go.kr) 등과의 연
계를 강화해 수집된 자료들을 NCS 능력단위 기반
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하고 타인의 경력개발도 참고
할 수 있어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
다. NCS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선해서 국민의 요구
에 걸맞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라
고 말했다.

독자이야기

당신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혹은 ‘일과 학습을 병행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감동적이거나 모두를 웃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섯 분을 추천해 온라인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드립니다.

2021년
1월호 당첨자



김태완

나의 자아실현과 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국가가 인정한 국가자격!



한보련

국가자격을 따기까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취 후의 만족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향기롭다!



김윤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자격에 도전했는데,
어려운 필기시험에 막혔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로 목표달성 예정이에요!



김선자

경력단절을 딛고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제 고향에 맞췄고 인심 좋은
베이커리 하나 차리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이영경

시험을 치고 나면 그 홀가분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합격하면 더 좋겠지만 비록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으므로 자격증 공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HiR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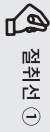
vol. 29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HiRD Korea 어떠셨나요?

엽서, 이메일(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해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우편엽서



이름

주소

전화

Four empty boxes for phone number digits.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HRD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er

02

2021년 2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원서접수(2.1~2.5) ▪ 제38회 관세사 1,2차 원서접수(2.1~2.5)	2	3	4	5	6 ▪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기능장 제69회 필기시험
21	22 ▪ 문화재수리기능자 원서접수 (2.22~2.26) ▪ 제39회 문화재수리기술사 1차 원서접수(2.22~2.26) ▪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원서접수(2.22~2.26) ▪ 제19회 경매사 1차 원서접수(2.22~2.26) ▪ 제36회 경정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 원서접수 (2.22~2.26)	23	24	25	26	27 ▪ 제58회 변리사 1차 시험
28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번 호 독자이야기 부분의 의견 또는 경험담을 써주세요.(3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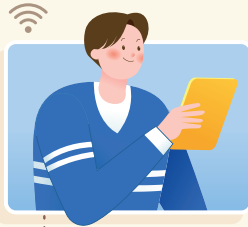


절취선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제15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Un+Contact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공고일 ~ 2021. 2.19.금 까지

공모주제 2021년 대면·비대면 병행 행사로 성장하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의 기획·운영 전략 아이디어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참여)

시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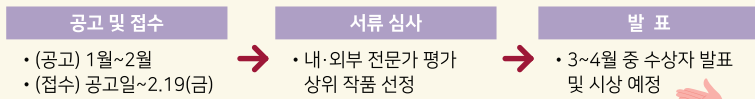
시상내용	선 정	상 금	훈 격
대 상	1개 작품	1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 우 수	1개 작품	80만원	
우 수	2개 작품	5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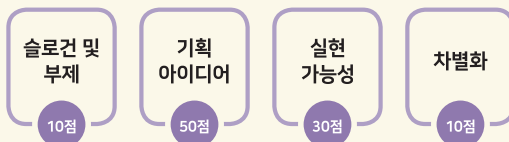
제출서류 ① 공모전 참여 신청서 1부, ② 아이디어 제안서*
* 표지(1매), 세부실행계획서(5매 내외)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이운주 과장
메일 | hrd_festival@hrdkorea.or.kr
우편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교동), 44538
문의 | 052-714-8214

추진일정



심사기준





당신의 능력개발 레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어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